

日 재계 “한국 TPP 긍정적 검토 환영”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도쿄서 한일재계회의…롯데 신동빈·도요타 우치야마다 등 참석 전경련, 통화스와프 제안…“한중일 FTA 조속 체결” 한목소리

전경련은 26일 도쿄에서 일본 게이단련(經團連)과 제25회 한일재계회의를 열고 양국 간 통화스와프 재개 등 양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단체는 내달 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최근 정치적 문제로 인해 서로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비중이 축소되는 등 경제협력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양국 경제계가 나서 협력 분위기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카키바라 사다유키(新木+神)原定(征) 게이단련(經團連) 회장은 “다음 50년간 일한 양국이 더욱 번영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새로운 협력 방향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에너지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등을 양국이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한국이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일본 경제계도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과 더불어 3국 재계의 ‘비즈니스 서미트’가 열리는 등 경제 협력 성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한일 청년 인재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2월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아시아 지역의 금융 협력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 경제계는 양국이 상징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국 경제계는 한일 교역이 2011년 이후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TPP(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 한일 두 나라의 경제협력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연대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경제계는 정보 통신, 사물인터넷(IoT), 건강·의료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관광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허 회장을 비롯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삼양홀딩스 김운 회장, 이건설업 박영주 회장, 풍산 류진 회장,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사카키바라 게이단련 회장, 도요타 우치야마다 회장, 미쓰이 부동산 이와사 회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4 실패한 영웅 항우

항우(項羽, BC 232~BC 202)는 진시황 사후 유방과 천하 패권을 다툰 무장이었다.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서초 패왕이 되었지만 해하 전투에서 유방에게 패해 자살로 삶을 마감한 비운의 영웅이었다.

항우는 초나라 명장 항연의 후손으로 숙부 항량의 손에 길러졌다. 어려서 학문이나 검술을 배웠으나 크게 진전이 없었다. 항량이 화를 내자, “글은 그것으로 이름을 쓰기에 족할 뿐이고 검은 일인의 적이라 배울 것이 못된다. 병법을 배우겠다”며 응답했다.

진나라 말기 도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항량과 거병해 세력을 키웠다. 강소성에 근거지를 두었는데, 군사가 6만~7만 명에 달했다. 이때 안후이성 출신의 지략가 범증이 참모가 되었다. 항량은 산동성 정도 싸움에서 전사하고 항우는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로 기를기 시작했다.

한신의 이담이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귀족 출신의 항우에게 한신은 신분 낮은 집안 출신일 따름이다. 유방은 한신에게 천하를 함께 나누자고 제안했다. 큰 봉지를 나누어줌으로써 한신과 팽원을 끌어들이 해하의 전투에서 항우를 사면초가로 몰아넣었다. “힘은 산을 뺄고 기세는 세상을 덮어도 때가 이르지 않아 추가 나아가지 않는구나”며 구슬프게 해하의 노래를 불렀다. 항우는 오강 앞에서 자결했다. BC 202년 31세의 나이였다.

그가 패망한 원인은 무엇일까. 포악한 성격이 거사를 그르쳤다는 주장이 많다.

역발산기개세… 포악한 성격 거사 그르쳐

이후 그의 활약상은 거칠 것이 없었다. 관중을 장악하고 진 수도 함양을 점령해 BC 206년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진나라 멸망 후 스스로 서초패왕이라 칭하고 유방을 파·축·한 등을 다스리는 한왕으로 임명했다.

유방의 야심을 눈치챈 범증은 “유방은 관중에 들어간 지금, 재물은 물론 여자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있다. 당장 공격해야 한다”며 유방 제거를 강력히 건의한다.

이를 눈치챈 유방의 사과로 화해의 자리인 흥문지연(鴻門之宴)이 열린다. 항우쪽의 암살 시도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장군 범증은 “큰 일을 할 때는 사소한 것은 조심할 필요 없으며, 큰 예절은 작은 겸양 따위는 문제 삼지 않는다”며 급히 탈주토록 했다. 범증이 떠날 때 “천하의 대국은 이미 정해졌다”며 결정타를 가했다.

이후 4년간 천하 쟁패전이 계속되었다. 팽성 전투에서 열 배나 되는 유방 군대를 대파했다. 유방은 타격을 입었지만 관중 지방의 인력과 물자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용맹한 경포가 유방측에 투항했다. 경포는 팽성의 남쪽에 근거하고 있어서 남방 방어진을 상실했다. 관세가 서서히 유방측으로

국지전에는 용맹스러웠지만 중요한 전투에서 실패한 것도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결정적인 항우의 전투와 해하의 전투에서 패하였다. 특히 진나라 멸망 후 요충지인 한중의 주도권을 넘겨준 것은 결정적 패착이다. 물자가 풍부한 한중지역은 유방에게 군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귀중한 토대가 되었다.

유방은 오만불손했지만 한신·진평 등 인재를 포용해 세력을 확장했다. 반면에 항우는 범증 한 사람의 충성심조차 의심했다. 결과는 자멸이었다. 가장 큰 결점은 자존심이 강해 직언을 싫어하고 부하를 믿지 않았던 점이다. 한신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아 떠나게 만들었다.

한신은 “아무리 계획을 많이 내놓아도 써주지 않았다.”고 절규했다. 참모인 범증도 의심했다. 범증이 떠날 때 “천하의 대국은 이미 정해졌다”며 결정타를 가했다. “나는 거병한 후 지금까지 8년 동안 몸소 70여 회나 싸웠다… 하늘이 나를 멸망시킨 것이다”

이제는 항우가 한 최후의 말이였다. 사마천은 그를 제왕으로 인정해 열전 편이 아닌 〈항우 본기〉에서 다루었다. 그는 실패한 불세출의 영웅이었다. <초대대학교 총장>



평화 찾아 떠나는 수천 난민 행렬 25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에서 넘어 온 난민들이 슬로베니아 리콘체 들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다. 난민 수천 명이 발칸 지역을 거쳐 중·북부 유럽으로 가려고 하지만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국경 지역에서 며칠간씩 기다려야 한다. /연합뉴스

EU, 그리스·발칸에

10만 난민수용소 짓기로

유럽연합(EU)과 발칸 국가들이 그리스와 동유럽 일대에 총 10만 명 규모의 난민수용소를 짓기로 했다.

EU와 발칸 지역의 11개국 정상은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발칸 난민대책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 난민수용소 건설을 포함한 17개 난민대책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그리스에 연말까지 5만 명 규모, 마케도니아와 세르비아 등 발칸 지역에 역시 5만 명 규모의 수용소를 각각 새로 건설한다. /연합뉴스

中 공산당 비밀회의 ‘5중전회’ 어디서 열리나

외부 접근 차단된 베이징 ‘징시호텔’ 가능성

중국공산당의 연례 최대 행사인 이른바 ‘중전회’(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의 개막과 폐막 시점, 논의 안건만 대외에 발표될 뿐 회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모두 비밀에 가려져 있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26일 베이징에서 개막했지만 아직까지 회의 장소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 언론들은 기존의 많은 중전회가 베이징 도심의 서쪽 징시(京西)호텔

에서 열렸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5중전회 장소 역시 징시호텔일 가능성이 크다고 점친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국가의 공식행사는 인민대회당을 이용하면서도 당의 중요한 비밀회의는 이 호텔을 자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보(新京報)의 웨이신(微信) 계정 ‘징사야’(政事兒)는 최근 관련 보도에서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개혁 청사진이 처음으로 제시된 3중전회, 범치개혁안 등이 마련된 4중전회가 모두 이곳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징시호텔은 호텔로 불리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호텔과는 거리가 멀다.

1959년 지어진 이 호텔은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직접 관리한다. 징시호텔은 베이징을 동서로 관통하는 대로인 장안제와 맞닿아있다. 그러나 인근 다른 호텔과 달리 창안가 쪽으로는 출입구가 아예 없다.

특히 2001년 호텔 개조공사를 마치면서 통신방해용 시설이 설치돼 비밀회의 내용을 도청하거나 휴대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연합뉴스

병원건물 임대

남구 송하동 광주대입구
센트럴레식당 건물

토지 2,211㎡(668평) 건물 4,218㎡(1276평)

- 파격적인 임대조건 (보증금 및 차임)
- 병원용도에 따라 10년이상 임대보장

문의 010-7570-7525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용봉동 굿모닝타운 2층상가 매매

- 전용289㎡ 현재 카페 인테리어+체육시설적합 공실포함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사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